

“승객 못 구한 죄책감에 악몽 여전...다신 이런 참사 없어야”

‘학동 참사’ 3주기...당시 54번 버스가사 인터뷰

골절·뇌출혈로 6개월 치료...정신적 고통 커 2년 만에 운전대 잡아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여전...길 가다 큰소리 나면 지금도 깜짝 놀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학동 참사) 3주기를 맞았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PTSD(트라우마·후유증)로 그 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동참사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학동참사 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절규한다.

학동 참사 당시 사고 버스인 54번 시내버스를 운행했던 버스 기사 A(60)씨는 6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도 사고 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렵사리 말문을 연 그는 ‘잊혀지고 싶다’며 사진 촬영은 거부했다.

A씨는 2021년 6월 발생한 학동참사로 6개월여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상반신 골절과 뇌출혈 등 부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당시 철거 중인 건물 잔해가 정류장에 도착한 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그는 참사 3년이 지난 현재 거동에 불편한 점은 없으나, 정신적인 고통이 더 깊고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나라나 지자체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알려 준 적도 없고, 스스로도 치료를 받을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 A씨는 지금도 그 날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다.

사고 순간이 문득 문득 떠오르고, 길을 가다 큰소리 나거나 무엇인가 갑자기 다가온다고 느끼면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A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꾸준히 등산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주저지도 광주에서 전남 지역으로 옮겼다”며 “2년여동안 운전대도 못 잡았다가 최근 겨우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아왔던 그였지만, 본업

에 복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는 ‘치료를 다 받고 돌아오라’고 배려했으나,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끝내 복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부터 다시 시내버스 운전운을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다시는 운전을 못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운전대를 잡으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몸이 알아서 기억하더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는 참사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학동4구역 사고 현장에서는 매년 6월 9일 추모식이 열렸으나, A씨는 심적인 어려움으로 절대 참석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 승객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지은 기분이 든다”며 “참사현장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사고 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학동 참사는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병폐가 원인으로 철거 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건물 외벽강도를 무시한 채 철거 작업을 하는 등의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빚어진 참사로 남았다. 참사 이후로도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가 이어졌다.

A씨는 “국가든, 지자체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면서 “단지 머릿속에서 (참사 기억이) 깨끗이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오는 9일 광주시 동구청에서는 사고 유가족·피해자를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거행한다.



그날의 참상 그대로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사흘 앞둔 6일 광주시 북구 각화정수장에 당시 사고로 매몰됐던 운림54번 시내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보관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같은 날 추모식에 앞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생명안전버스’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정중년수련원 화재, 인천 인현동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가슴기 살균제 참사, 공주소대교 병영체험학습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대지호 침몰 등 8개 참사 피해자들이 설립한 연대 단체다.

연대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 참사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168km 과속’ 암행순찰 단속...법 판단은?

운전자 “억울” 소송...“사진 한장만으론 증거 부족” 2심도 무죄

A(57)씨는 2022년 12월 나주경찰로부터 횡단한 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1월 4일 밤 10시께 나주시 영산로 국도 1호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시속 168km로 운전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였다.

A씨가 경찰에 관련 증거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암행순찰차를 통해 찍은 차량주행 사진 한 장이였다.

억울하다는 A씨의 하소연에도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광주지검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 A씨는 재판에서 출근 자신의 SUV로는 굵은 도로인 단속구간에서 시속 168km로 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당시 시간인 오전 10시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인데다 굵은 도로여서 168km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

해 믿기 어렵다. 증거는 단속 사진 한 장 뿐”이라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속 168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현의 홍현수 변호사(민법 광주전남지부장)는 “암행차량에서 A씨 단속 동영상이 촬영됐는데도 2주 만에 삭제됐다. 경찰이 동영상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차량 사진 한장만으로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판결은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라며 “암행단속에 걸리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속도 위반의 확실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 프로야구 스타의 몰락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 갚지 않은 임차용 법정에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임씨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임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11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상소도박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진흥고를 졸업한 뒤 1995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한미일 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사 현장서 고의 사고

광주지법, 건설사에 금품 뜯은 8명 징역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고의의 사고를 내고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후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현)은 공동공갈, 보혐사기방지방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공범 등 8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담양·나주·장성·화순 등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의의 사고를 내고 기술자처럼 행세하며 ‘안전 시설물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며 병위비, 노동손실보상비, 렌트비 등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차량을 전도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해 세워놓은 러버콘을 길 가운데로 옮겨 놓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난 첫 차량 꾸렸다. 이들은 건설사가 공사에 응찰할 때 안전사고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사가 금액은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등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 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타에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